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과제

홍 선 미 (한신대 교수)

I. 서론

개인의 고통(private troubles)과 사회적 문제(public issues)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이 제도적 변화를 통한 접근을 한다면 사회사업 실천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는 COS의 전통을 따라 사회사업의 주 영역을 이루어왔던 개인적(individual) 차원에서의 개별 지도적 접근(Casework approach)이라기 보다는 문제를 가진 개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관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접근방법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Meyer(1966)가 지적하듯이 고립된 개인은 더 이상 실천적 사회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가족, 집단, 조직, 이웃,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의 문제(problem in living)가 파악되고 각 개인의 독특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이 선택되고 개인에 맞게 조합될 때 진정한 개별화와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분화된 현장에서 상이한 이론과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된 사회사업의 다양성이 사회사업의 목적을 중심으로 일관성있게 전개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위에 제시된 통합적 접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적 틀을 만드는 기초 작업으로서, 사회사업 실천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해

1.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

전문직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사회로부터 인가받은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최적의 삶의 질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사업이 실제로 가장 절실한 욕구를 가진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을 외면해 왔으며,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현상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므로써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회의 조건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비난은 사회사업의 개입방법사회사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Turner, 1970).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은 채 이론적, 실천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사회복지 전문직 내부의 부분적인 노력들은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가된 권위적이고 기술적이며 독점적인 전문직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사회속의 개개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회사업의 기본적 속성과 가치적, 윤리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해 온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타 전문직의 기술적 전문성과의 양립가능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기술론적 과정 중심의 전문직 사회복지사와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기반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율성과 권리확보, 클라이언트와의 연대를 통한 사회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로서의 시각이 대립되며 사회복지사의 위상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상록, 1994).

2.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성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중심의 거시적 접근과 사회사업의 미시적 접근으로 나뉘어 있다면 사회사업은 다시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아동, 청소년, 노인...), 문제의 종류(빈곤, 의료, 교정...), 기관의 형태(복지관, 시설...)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나뉘며 개입 방법에 따라 개별 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 조직론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회사업의 대상과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개입 방법은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정신분석학적 접근(psychanalytic approach)으로

부터 급진적 접근(radical approa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1) 사회문제 분석의 다양한 틀

Mary Richmond(1922)가 인간과 사회 환경사이에서의 적응을 돕는 것이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정의하기 이전부터 사회사업은 인간과 환경의 이중적 초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개인의 부적응에 관련된 심리학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한 협의의 개별 사회사업의 비대한 발전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 완화시키며 사회에 반응적인 인간으로 적응시키는데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인간과 환경이라는 사회사업의 기본 초점을 벗어나게 만들었다. 특히 인간의 무의식적 심리내적 갈등에 관한 정신분석이론의 상담 기법들은 의식 또는 전의식 단계에서의 상담이나 면접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의 주요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이론과 사회사업 실천과의 분리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전통적인 사회사업 이론 중에는 개인과 환경사이의 연결성을 의식하며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다양한 심리 사회적 모델들이 있었으나 환경은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인의 외부적 사회 상황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갖게 되며 따라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리된 관점이 유지되었다(Fook, 1993).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생태 체계적 접근법들은 체계 내에서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개인, 집단, 지역사회 또는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의 다양한(직접적, 간접적) 방법들을 통한 개입을 제시한다. 생태 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제시된 모델들은 이전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모델과는 달리 전문가적 가치, 목적,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접근들로서 사회사업의 실천 분야나 방법을 넘어서는 사회사업 문제해결 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Dore, 1990, Meyer, 1987). 그러나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개인의 변화와 동일하게 환경도 인간에게 적응해 나간다는 상호 교류(transaction)에 관한 생태 체계적 관점의 기본 전제는 체계간의 힘의 역학관계나 갈등을 간과하고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급진주의자들은 개인의 해방과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적 통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능 하

는 사회사업의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 기존의 지배계급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거시적 시각에서 힘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부분도 함께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사업 실천이 없이는 사회 속의 개인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Fisher & Karger, 1997; 김종해외, 1997). 이들은 옹호(advocacy), 의식화(consciousness-raising), 복지권(welfare rights)등을 통해 사회사업 현장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집합적 행동중심의 급진적 접근은 집단 속의 개인의 고통을 해결해나가는데 필요한 구체적 원칙이나 방법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며 개개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사업의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고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 분야의 세분화

우리는 사회사업 초기의 COS와 인보관 운동이 개인의 적응 또는 사회개량과 같은 각기 다른 개입의 초점에 따라 상이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선택하며 사회사업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이러한 흐름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해와 시각의 차이에 의한 분리였으나 자선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치유와 함께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접근은 개별지도(Casework) 위주의 방법을,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를 인식하며 집단적 노력을 시도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접근은 사회행동 중심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의 방법을 택하므로써 문제에 대한 접근과 개입의 방법이 마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다양한 개입 수준에서 활용되지 못하였다(홍선미, 1996a).

또한 사회사업의 특정 분야나 기관들의 활동은 사회사업 전문직의 합의된 목표 하에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통합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상황과 욕구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마련보다는 세부 영역에서의 전문적 기술의 개발과 모델의 유용성 검증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얽매어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선택적으로 파악하므로써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문제와 해

- 1) 급진주의는 기존제도의 변화라는 동일한 과제 하에 기존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의 개혁(reform)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와 혁명적 변화(revolutionary change)를 통한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적 급진주의로 나뉘고 있다. 사회사업 실천은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의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마르크스적 급진주의는 사회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결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어렵게 된다. 이는 곧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장애가 되는 기존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특정 집단에 대한 서비스의 부재나 포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적 서비스 체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있어서 체계 제한적이 된다²⁾.

Ⅲ.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합적 접근

1.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보다는 분석 틀의 변화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되며 실천적 이론과 방법을 결정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와 개입 방법에 따른 기술과 지식이 적절히 선택되고 조합될 수 있는 실천적 분석 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 합의는 사회사업의 목적과 개입목표를 명확하게 하며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Bartlett(1970)은 사회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던 기술적 방법(modality) 보다는 가치를 사회사업 전문직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다. Perlman(1965)도 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들이 전통적으로 분리된 방법과 특정 기술에 의해 제한되는 위험을 경고하며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틀 속에서 특정 방법과 기술들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매일 매일의 업무는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기반은 문제와 접근 방식에 대한 사회복지사 또는 기관의 가치와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적이며 기술적인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 지식과 기술을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인 기능적 전문성을 지향하고 각 분야들의 개별적 발전을 이루게 하고 있다. 개인의 삶을 영역별로 분리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나뉘어진 사회사업내의 각 분야(fields of practice)에서의 기술적 분화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윤리에 대한

2) 예를 들어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찾아 의뢰된 아동을 빨리 입양시키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일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미혼모 상담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의뢰된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 형태를 찾기 위해 모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존의 부녀 및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입양이외의 (위탁가정 서비스나 미혼모 가정을 위한 지지 서비스와 같은)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거나 서비스의 겹을 매우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관심보다는 각 분야들에서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기관의 생존을 더욱 강조하며 각각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파생되는 문제와 개인의 고통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이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화된 기관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제한된 업무 속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기관이 갖고 있는 가치와의 갈등으로 소진되거나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역할로 타협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사업의 새로운 실천적 틀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사업의 기본가치하에 사회사업 실천의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표를 재 인식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위에서 인간과 환경사이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요소들이 일관되게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2.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 과제

기존 사회사업의 제한된 역할로부터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관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통합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³⁾. 즉 개별, 집단, 지역사회와 같은 개입 대상의 수준을 다양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고통(private troubles)과 사회적 문제(public issues)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을 통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사업의 대상은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이루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인식과, 개인의 고통은 그 사회의 역동적 상황과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하며 또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삶 속에 반영될 수 있다는 확신을 기반으로 한다.

1) 클라이언트 수준의 개입: 개인적 능력 부여(personal empowerment)

능력부여(Empowerment)의 개념은 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역사적 제 조건들에 의해 무력화

3) 현미경으로 개인의 문제를 가까이 바라볼 때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는 있으나 초점을 벗어난 희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막연한 생각에 그칠 수 있다. 반면 망원경으로 사물을 멀리서 바라 볼 때 우리는 문제를 전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세밀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놓치게 될 수 있다. 결국 망원경과 현미경을 번갈아 가며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인식과 접근법의 탄력성에 의해서 사회사업의 초점인 인간과 환경사이의 적응이라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된다.

된 소외집단 속의 개인들이 지각(perception), 의식(consciousness), 계몽(enlightenment) 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내부적 통제를 갖게될 뿐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얻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Hasenfeld, 1987, 백종규, 1996)4). 이는 곧 조화로운 자원의 흐름과 인간과 환경사이의 적응을 막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환경적 조건들과 연결시키므로써 사회적 변화를 위한 개인들의 능력과 의식을 고양시키고 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ose(1990)는 개인의 거시적인 구조적 환경과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개별화된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 요인들과 사회변화의 비전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경험, 지식, 세계관이 공유되고 문제에 대한 역동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파트너로서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내포하는 진단적 사고와 치료자로서의 전문가적 권위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접근(paternalistic approach)은 클라이언트를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며 자신의 문제해결에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게 하므로써 피해자 비난(blaming the victim)이라는 시각을 낳게 한다. 클라이언트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전문가 중심의 가부장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독특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한 문제에는 동일한 인스턴트 식의 문제해결 방식을 적용시키므로써 개별화라는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원칙이 실제로 무시되어졌다. 또한, 사회사업의 대상을 병리적 문제를 가진 열등하고 낙오된 개인으로 제한하므로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회사업의 기본 원칙인 자기결정권이 지켜지지 못하였다. 이는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우월성, 사회의 인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통제 등으로 구조화된 전문가-클라이언트간의 힘의 불균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클라이언트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왔던 학습된 무력감을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재확인하며 사회사업의 사회 통

4) Simon(1994)이 클라이언트의 능력부여(empowerment)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와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 둘째, 클라이언트의 역기능보다는 능력의 강조, 셋째, 개인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이중적 관점의 유지, 넷째, 권리와 책임, 욕구를 가진 능동적 주체로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 다섯째, 지속적으로 무력화된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화된 태도 등이다.

제적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홍선미, 1996b). 그러나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의 파트너 쉽이 반드시 둘 사이의 균등한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수 있다. 오히려 진정한 파트너쉽은 자원과 지식에 의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를 인정하되 전문성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이해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3) 기관의 변화: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의 서비스

사회사업의 특정분야나 기술로부터 클라이언트의 문제 중심으로 개입의 대상을 전환해야한다. 기존의 기관(setting) 중심의 제한된 시각과 기술에 의해 정의되고 접근된 문제해결 방식으로부터 클라이언트가 갖고있는 욕구와 해결 되어 할 문제 중심으로 필요한 해결방법들을 모색해야하며, 이는 생애주기(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와 문제 영역(빈곤, 가족, 의료...)에 의해 구분된 기관중심의 서비스로부터 벗어나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는 한 가지 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사업 기관의 제한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구를 담은 상자를 갖추고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능이 되어야 하거나 각 부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례들의 총체적인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되 자신이 개입 가능한 부분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전문가들과 문제해결과정에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술이 요구된다(Klenk & Ryan, 1970). 이상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욕구를 기반으로한 중복적이거나 누락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각 부분에서의 전문가(specialist)들이나 전문기관들이 존재하며 각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포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하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의 한계로 별도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비 현실적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와 같은 지역중심의 서비스 기관이 일차적으로 의뢰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합적 정보와 욕구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하기 위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정한 능력부여(empowerment)란 타인들과의 연결 속에서 개인적 문제해결과 함께 집합적 해결책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기존의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지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집합 행동은 개인의 능력부여(empowerment) 이후에 이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Fisher & Karger, 1997).

기술론적이고 개별화된 사회사업 위주의 발전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영역과 개입범위가 축소되고, 사회사업의 역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사업가들의 사회개량(social reform)적 역할은 빈민운동을 하는 지역사회 활동가나 자조집단 형태의 민간단체, 또는 경실련, 참여 연대와 같은 사회행동단체로 많은 부분 이전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1980년대 말 이후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권리와 사회복지에 대한 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사회복지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학계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을 벗어난 사회참여적 활동을 사회사업 실천의 한 형태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며 아울러 사회복지 관련 문제나 요구를 이슈화하고 아젠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운동의 주체로서 전문적 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관과 같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모토로 하는 지역기반의 사회복지 실천도 주민참여의 부족과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사회 복지활동이나 정책 및 제도변화를 위한 조직활동이 사회복지사 주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곧 사회복지 실천영역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황성철, 1997).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의의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활동과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주체적으로 전개한 활동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사회복지의 실천분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의 과제는 영역에 대한 논란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천현장과 실천성이 부족했던 전문가와의 결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거시적 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복지관은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주민과의 연결을 기반으로 지역중심의 지역사회 조직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므로써 지역사회 기관과의 유기

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사회내의 개인과 집단의 욕구에 대한 답론을 가능하게 하며 시민의 의무, 사회적 협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사회 기반의 공공의 삶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⁵⁾. 이러한 지역기반의 변화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사회복지 활동을 해왔던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⁶⁾.

5) 전문가 조직과 노동조합의 역할

때로 클라이언트 개 개인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왔던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문제를 줄여주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또한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복지사도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즉각적이고 부분적인 욕구에 대한 개입으로 그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진정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과적인 능력 부여(empowerment)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능력부여(empowerment)가 필요하다(Sherman & Wenocur, 1983).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혼란과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문제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자신의 empowerment는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환경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주며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지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도움을 필요로 할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전문가 조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때 앞서 논의되었던 전문성에 대한 전문직 내부의 합의는, 전문가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입방법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 전문직의 의미와 책임을 확인시키며 사회사업이 지향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조직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과 서비스 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관악주민연대단 안산시 사회복지 협의회는 지역중심의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복지 운동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이인재, 1998).
- 6)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이 Fisher와 Karger(1997)가 제안한 사회행동 중심의 포괄적인 지역사회 조직의 기술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 사회사업의 정치화(political social work), 동맹관계 형성(coalition building), 기금모금(fundraising), 행정적 기술(administrative skill), 기술(technology), 문화적 능력과 기술(cultural competence and skill).

전문가 조직의 역할과 함께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복지운동의 가능성이 점차 많이 제시되고 있다(Corrigan & Leonard, 1978; Fisher & Karger, 1997; 이인재, 1995; 이상록, 1994; 백종규, 1996). 특히 타 노동조합에 비해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권의 확보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려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다 새로운 사회사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가 조직과 노동조합의 양립성과 보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시각의 차이로 인해 두 형태의 조직사이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구성원의 권익보호와 클라이언트의 복지향상이라는 공통된 과제하에 거시적 변화를 위한 연대의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사회사업의 실천은 과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수단이나 도구의 발견 과정이 아니라 사회사업 실천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전문가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사회사업의 실천적 접근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기존의 서비스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의 조건하에서 가능한 부분과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양한 수준에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겠다. 또한 기술의 습득보다는 사회와 개인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해줄 수 있는 사회사업 교육이 전제되고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전문직 내부의 합의와 전문성의 발전을 위한 연대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개인과 사회의 동시적 변화 속에서의 사회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종해, 김민선, 노연희, 이채원, (1997). "진보적 사회사업 실천의 방향성 모색", *Social Service Review*, 105-126.

백종규, (1996). "한국 사회복지운동의 사회복지 실천적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록, (1994). "사회사업 종사자에 관한 제 시각의 비판적 고찰," 동향과 전망, 267-296.
- 이인재, (1998).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주민참여 사례연구," 상황과복지, 제4호, 33-52.
- 이인재, (1995). "사회복지 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복지 실천가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제26호, 201-226.
- 홍선미, (1996a).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토론편,"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100-101.
- 홍선미, (1996b). "Service Use of Homeless Mentally Ill Women in New York City,"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황성철, (1997). "전문 사회복지 실천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이론적 접근," 1997년 한국 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4-20.
- Bartlett, H. M., (1970). The Common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NASW, Inc.: Silver Spring, MD.
- Fisher, R., & Karger, H. J., (1997). Social Work and Community in a Private World: Getting Out in Public. Longman: White Plains, NY.
- Fook, Janis. (1993). Radical Casework: A Theory of Practice. Allen & Unwin: St. Leonards.
- Ginsberg, L. H. (1968). "Organization of the poor-threat or opportunity?," Public Welfare, Vol. 26(1), 60-66.
- Hasenfeld, Yeheskel (1987). "Power i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61(3), 469-483.
- Klenk, R. W. & Ryan, R. M., (1970). The Practice of Social W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Belmont, CA.
- Meyer, Carol, H. (1987). "Direct practice in Social Work: Overvie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 Meyer, Carol, H. (1966). "The changing concept of individualized services," Social Casework, Vol. 47(5), 279-285.
- Perlman, Helen, H. (1965). "Social work method: A review of the past decade," Social Work, Vol. 10(4), 166-178.
- Richmond, Mary. (1922). What is Social Casework?, Russell Sage: New York.
- Rein, Martin, & White, Sheldon H. (1981). "Knowledge for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4-21.

Sherman, W., & Wenocur, S. (1983). "Empowering public welfare workers through mutual support," *Social Work*, Vol.28, 370-375

Simon, Barbara, L. (1994). *The Empowerment Tradition in America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New York.

Turner, J. B., (1970). "In response to change: social work at the crossroad," R. Klenk & R. Ryan, (Eds.). *The Practice of Social W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Belmont.